홍·싱·광 문화전쟁 광주 승자 되려면

아시아 각국 도움 주는 '문화 원조도시' 만들자

전문가 4명의 제언

류재한 교수

이용우 대표

이병훈 전 단장

이기훈 처장

류재한 "문화중심도시 조성 광주가 중심이 돼야"
이용우 "광주 향토적 전통·유산 체계화 작업부터"
이병훈 "인력채용 서둘러 개관 준비 차질없게"
이기훈 "지역의 문화자원 개발에도 역량 모아야"

21세기 문화를 선점하려는 도시, 국가 간 경쟁은 아시아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들이 앞다퉈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광주는 오는 2015년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과 더불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첫 걸음을 뗀다.

광주지역 문화예술 전문가들은 "광주가 타 도시 보다 문화적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문화원조(援助) 도시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고 각국에 문화·예술적인 도움을 주는 도시가 돼야 차별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대한 제언을 싣는다.

◇류재한 전남대 유라시아연구소장=광주가 아시아권에서 성공한 문화중심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원조'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문화를 수입하고 소비하는 도시에서 벗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문화적인 도움을 주는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통해서 아시아 문화를 살찌우고 타 국가들과 차별화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국책사업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추진되지만, 광주가 중심에 서야 한다. 현재 광주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로드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화전당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당을 운용할 전담인력을 뽑아 놓지도 않고 프로그램만을 짜고 있다.

전담운용 인력들이 참여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문화전당 건립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가 중심이 돼 민주·평화의 가치에 맞는 도시정신, 광주문화가 문화전당의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이용우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문화전당 콘텐츠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개발원이 마련중인 콘텐츠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콘텐츠에 광주의 정서·문화적 전통이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 콘텐츠가 현실화돼 있지 않다는 의견 등이다. 이는 지역사회와 교감이나 소통 없이 콘텐츠가 마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만의 콘텐츠를 담기 위해서는 철학·전략산업적 방법으로 세분화해 접근해야 한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광주에 문화예술 교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문화시설 건립과 문화예술 전문기획자 양성을 위한 시설 지원도 절실하다. 광주가 아시아 도시들과 똑같은 문화상품을 내놓아서는 결코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 중앙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 비로소 차별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의 향토적 전통과 유산을 체계화하는 작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병훈 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문화전당이 개관한 이후 제대로 기능하고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개관 콘텐츠는 물론 개관 이후 운용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예컨대, 공연물을 제작하더라도 무대에 올릴 정도로 완성도를 높이려면 수년이 걸린다.

그러나 현재 개관에 대비한 콘텐츠 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정부에서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광주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임을 감안, 조직과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큰 틀은 대한민국을 아시아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거시적 안목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아시아문화개발원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각계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거쳐 문화전당의 운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문화전당을 운용할 전담 인력 채용도 미뤄서는 안되는 시급한 과제다. 방대한 문화전당을 운용할 인력을 선발해 지금부터라도 차질없이 개관을 준비해야 한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사무처장=문화전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광주 곳곳에 문화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도 결국 문화전당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만큼 문화전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문화전당 건립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광주라는 지역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문화와 연계된 콘텐츠 구축도 중요하다.

광주 문화예술계도 지역 문화·예술을 문화전당의 자원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문화전당에 지역 콘텐츠를 담아줄 것을 요구하면서도, 지역의 문화자원을 개발하는 데 역량을 모았는지는 의문이다. 지역 문화예술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아시아 문화개발원 등이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201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예술극장(왼쪽)과 복합전시관 전경. 현재 문화전당 건립 공정률은 50%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건물들에 대한 내부 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난 2010년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Marina Bay)에 세워진 아트사이언스 뮤지엄(ArtScience Museum) 야경.

오는 2015년 기반공사가 완공되는 홍콩 서구룡 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 프로젝트 조감도.

장·차관급 9명 프로필 … 호남 1명 영남 4명

이경재 방통위원장 … 4선의원 출신 친박계 중진 역할

새누리당 4선 의원 출신인 친박(친박근혜)계 인사. 1992년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인천 강화에서 첫 당선된 뒤 18대까지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내 비주류로 정치적으로 칩거하던 2009~2011년 친박계 중진으로서 무게중심의 역할을 했다.

▲경기 이천(72) ▲서울대 사회학과 ▲동아일보 정치부장 ▲공보처 차관 ▲15·16·17·18대 의원 ▲18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범례 : 직책, 이름(나이·출신), 현직, 학력, 경력 순

·기재부 1차관
추경호(53·대구)
·금융위 부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25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 금융 비서관

·국방부 차관
백승주(52·경북)
·국방연구원 안보전략 연구센터장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민주평통자문위원, 인수위 전문위원

· 기재부 2차관
이석준(54·부산)
·기재부 예산실장
·서울대 경제학과, 행시 26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 상임위원

· 해수부 차관
손재학(52·부산)
·국립수산과학원장
·수산대 자원 생물학과, 기시 21회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장, 농림부 수산정책관

· 미래부 1차관
이상목(58·충북)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연세대 토목공학과, 기시 13회
·교과부 기초연구국장, 교과부 과학기술정책실장

· 국무2차장
고영선(51·서울)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본부장
·서울대 경제학과
·KDI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KDI사회개발연구부장

· 미래부 2차관
윤종록(56·전남)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
·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
·KT 성장산업부문 부사장, 인수위 전문위원

· 금융위 부위원장
정찬우(50·서울)
·금융연수원 부원장
·서울대 국제 경제학과
·전남대 경영대 부교수, 인수위 전문위원